

### 3-5

#### 식이요법에 의한 간암의 호전에

박원봉\* , 박양호, 고경, 이희숙,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식품과학과)

서론 : 간암의 중간생존율(median survival)은 2-4 개월이며 조기진단 및 치료를 못할 경우 6 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게 되며, 특히 복수등 임상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예후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암의 원인은 B 형 간염 바이러스나 aflatoxin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체내에서 발암물질로 인하여 변형된 이상세포가 전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면역감시기능이라는 일종의 개체방어능력이 약화되어서 암세포화된 비정상세포의 파괴 제거작용을 못하게 되면 정상세포가 가진 세포증식 조절기능을 잃고서 제멋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비타민(비타민 B complex, C, E 등)과 미네랄(Zn, Fe, Se, Ge 등)은 대식세포 및 T-림파구를 활성화시켜 lymphokine 및 종양괴사인자(TNF)의 분비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 A, C, E 등의 항산화물질들은 유리기로 인한 세포의 과산화지질 생성 및 돌연변이를 억제한다. 따라서 암환자들에게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하고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 하도록 한다면 암세포 증식억제 및 소실에 도움이 될것이다.

대상 및 방법 : 식이요법 지도는 1991년 6 월부터 1992년 3 월 사이에 병원에서 간암으로 진단 받았으나, 복수, 황달등의 이학적 소견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 중 1에는 간암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였으며, 5 에는 화학요법에 의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였다. 식이방법은 각종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명일엽, 썬프리 등 몇가지 식용야채를 그 효율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녹즙을 만들어 섭취하게 하고, 비타민 B complex, 단백질, 미네랄, 다당체 등이 함유된 식용효모를 함께 섭취 하도록 하였다. 식이지도 및 섭취어부는 면담 및 전화에 의하여 행하였으며 암의 호전어부는 복부 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혈관촬영술등의 임상검사 결과에 의하여 암종피의 크기의 감소나 종피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과: 대상환자 10예 중 6 예에서 호전을 경험하였으며, 호전된 예 중 1 예는 황달이 심했던 경우로 수술후 식이요법을 실시하여 중세가 호전 되었으며 2 예는 화학요법에 의한 병원치료를 겸한 경우이다. 식이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간질환 중 특히 간암의 경우는 복수, 황달 등의 임상증상이 없을 경우 식이요법시 예후가 좋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이요법은 간암의 예방 및 약물치료시 보조요법이나 수술후 재발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